

유럽 도시 광장에서 나타나는 공유문화기반의 공간적 구성 특성 및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Spatial Composition of Shared Culture in European City Square

Author 황미영 Hwang, Mee-Young / 정회원, 동양대학교 건축실내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cultural tendency based on sharing and cooperation, which has recently been a hot issue, accelerates throughout the world. This study began with a perception that a sharing culture is inherent in urban public spaces.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theoretical study of the sharing culture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composition of public spaces. This study selected squares in 16 European cities as cases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1)To analyze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public spaces in which a sharing culture is inherent, this study drew the shape and type of planes and sharing elements such as accessibility, symbolism and activity with the squares in the cases. 2)The shape of planes in the squares in the cases has been formed in close relations with the historic meaning and events of the area and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surrounding the square. The squares in the cases were classified into seven plane types, and these squares have developmental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 sharing culture as a place for fre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concerning social issues. 3)In the squares in the cases, the weight of road-centered access appears high, and in terms of the construction of human-friendly / environment-friendly infrastructure in the city or judging from the trend of the recent increase of pedestrian-centered plans for public space, it is judged that approaches with a high utilization rate of sidewalk or public transportation would be desirable. 4)Symbolic elements of the square become a device by which citizens can share the historic symbolism, along with artistic inspiration. In addition, by serving as an observatory from which people can take a view of the landscape of the city, it allows visual sharing of the entire city as well as the square. 5)A square is common pool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at in a direction of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haring, through the characteristics and methods of the composition of public design.

Keywords 공유문화, 도시광장, 공공공간, 공공디자인, 공유요소
Sharing Culture, City Square, Public Space, Public Design, Sharing Element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현대의 도시 공간은 그 도시만이 갖는 현상학적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의미 있는 장소이자 도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적 공간이다. 도시의 기능은 점점 문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21세기는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이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유 협력 기반의 문화경향은 세계 전 지역에 걸쳐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치들을 해결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의 창조적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도시 속 공공공간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단절과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며 시민생활의 중심적 공간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와 공유적 사고를 통해 사회문화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다.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인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함께 나누고 즐기며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요구한다. 해외의 선진도시들을 살펴보면 많은 도시들에서 시민들에게 시간적·공간적 감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대규모의 공공공간이 도시의 축이 되거나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이 도시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 공유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유럽의 도시 광장들은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 경제적 측면의 중심점 역할을 해왔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변의 건축적 요소들과 함께 도시의 구조를 상징화하며 진화해온 중요한 공공공간이자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은 공유문화의 차원에서 인간과 도시의 미래를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공유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사회문화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지역에서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공유공간으로서 도시의 광장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과 재구축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광장은 유럽의 광장과는 달리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현대에 이르러 시민들의 소통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심 속에서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향유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장소로서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도시의 광장문화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과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천적 행위로서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 즉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장에 대한 공유문화 차원의 인식과 공공공간으로서의 생산적 활용방안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발전된 유럽의 도시 광장에 대한 공유문화와 그 공간적 구성 특성의 분석을 통해 시사하는 바를 연구함으로써 그 적용가능성과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도시의 공공공간 즉 광장이라는 공간에 공유문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 표현으로서 광장에 대한 공유문화기반의 공간적 구성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최종적으로는 향후 광장의 공간 구성 및 설계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의 도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속성 중 하나인 공공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도시의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도시민들이 쉽게 다양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누구에게나 항상 개방되어 있는 유럽의 도시 광장 16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공유문화와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유문화와 관련한 담론과 공공공간에 내재된 공유요소들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도시의 광장사례들에 대한 현황

을 파악하여 분석대상사례에 대한 분석기준을 검토하며 공유요소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분석기준을 근거로 사례광장에서 표출되고 있는 공유요소들(평면형태/유형, 접근성, 상징성, 활동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광장이라는 공공공간 속에 공유문화에 대한 디자인적 속성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공유문화에 대한 담론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핫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공유경제, 공유문화 등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이다. 공유라는 뜻은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함께 나눈다는 뜻의 셰어링(sharing)이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공유(지)로 해석하는 커먼스(communs)¹⁾는 물질적/비물질적 대상, 공유활동과 삶의 방식으로서의 공유의 실천, 경제사회적 질서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²⁾ 또한 맑은 공기나 물과 같이 사회 구성원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소, 시스템, 공통의 문화로 일컬어지며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에게는 지속가능한 공동의 귀중한 자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협력적 공유사회가 미래의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지배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며,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 공유문화를 독려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³⁾ 그리고 그는 무료 수준의 네트워크화된 공유사회로의 이동은 소유권보다는 접근권이 더욱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는 공유사회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평한 접근, 사용,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협력적인 방식으로 자원이 관리된다면 언제나든 생겨날 수 있는 사회 형태라고 언급⁴⁾함으로써 공유문화가 사회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핵심적 시스템 중 하나임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이 월제스퍼(Jay Walljasper)는 요즘의 상당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가상의 공유사회에서의 활동 이전부터 훨씬 더 오래된 형태의 공유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민주주의는 시민이

1)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는 공유(커먼스;commons)라는 용어에 대해 노르만 단어인 선물과 의무라는 뜻을 갖는 commun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도서출판갈무리, 2015, p.251

2) 위의 책, p.11

3) 제러미 리프킨, 한계비용 제로사회, (주)민음사, 2014, pp.33-37

4) 제이 월제스퍼,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주)우리교육검등소, 2015, p.30

모일 수 있는 공공공간 즉 광장, 대로, 공원과 같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유사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한편 생명과 세계성, 다원성을 인간실존의 세 조건으로 명명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인간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고, 영속적인 자신의 세계를 가져야 하며, 이 세계를 말과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⁶⁾ 즉 사람들이 만나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장소인 공적(공공)의 영역에서 생명이 자신의 세계와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활동하며 실행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분석을 제시하며 공존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사회에도 확장된 범위의 생활속 공유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공유문화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공간은 물론 물건, 시간, 정보(database)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공유문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실제 문화는 공유되는 것이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상의 공동의 광장(장소)를 마련하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공유문화는 현 사회를 살아가는 소속 구성원들에 내재되어 있는 일종의 당연한 현상이며, 이미 현대인들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가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사회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공유문화에 익숙한 상태이다. 물리적 공간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효과는 물론 커뮤니티를 창출하도록 하는 쉐어하우스(share house)와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에어비앤비(airBnB) 또는 차량 공유 서비스 개념의 카셰어링, 우버(uber) 등 이러한 공유 플랫폼(장)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면서 소유가 아닌 대여와 차용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협력적 공유경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환경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의 접근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가 사고의 전환을 보여주는 새로운 경제모형으로 알려져 있듯이, 그리고 빌 맥키벤(Bill Mckibben)이 공유가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도 희망적인 개념 중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공유문화 또한 문화적 차원에서 사용과 활용에 초점을 두어 함께 나누고 즐기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인 것이다.

2.2. 공공디자인과 공유문화

공공디자인은 공공을 위한 디자인이고, 나아가 대중의 공적 사용과 활용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도시에서의 공공디자인

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적 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상태의 물리적 환경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활동이며, 단순히 열려있는 공개된 환경이 아니라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담은 유연한 형태의 공유공간으로 창출함으로써 한 도시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디자인이 실행되는 공공공간은 근본적으로 공유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공유공간으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고 창출하는 유연한 사회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을 통한 물리적 공간에서의 공유문화는 공공공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사람들 간의 관계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2.3. 공유기반의 공공공간, 광장

도시는 건축물, 인간, 자연물 등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페날로자(Enrique Penalosa)는 민주주의 사회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훌륭한 공공장소를 제공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사회가 보다 통합된 건강한 사회임을 말하며⁷⁾ 공공공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도시의 공간 내에는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공간들이 많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 거리, 공원, 광장 등이 있으며 이들은 도시와 건축물, 사람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이러한 개방된 공공공간으로 향하는 내면에는 도시의 공공공간이 시민들의 일상에 유용한 가치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도시의 전통적 공공공간인 광장은 도시내부의 주요지점에 위치하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도시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적 특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도시구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광장은 움직이는 사람 중심으로 연결되어 유기체와 같은 생명력을 품은 공공공간으로 재창출된다. 차량이 배제된 라데팡스(La Defense)광장은 오로지 보행자들만이 광장의 넓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문화감상과 도시의 조망이 가능한 인프라로서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폼피두센터(Pompidou Center)가 대중과의 소통 및 향유를 핵심기능으로 규정하며 대지의 반 정도를 광장으로 조성하여 대중의 즉흥적 참여와 공유의 공간으로 활성화한 것 등 세계적인 도시들에서 대규모의 공공공간 즉 광장의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도시 공동체의 커뮤니티로서 공공공간의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도시의 가치는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의 디자인

5) 제러미 리프킨, 위의 책, p.308

6)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도서출판한길사, 2009, p.35

7) 제이 월레스퍼, 앞의 책, p.246

적 접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공유문화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공공공간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2.4. 광장과 공유요소

대중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공간 즉 광장은 공공성을 속성으로 한 개방(open), 소통(communication), 활동성, 다양성(diversity), 자유(freedom), 공유(communs), 접근성(accessibility), 상징성 등의 의미를 담아 디자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중요한 장소이다. 공유공간에서 절대적 기반이 되는 공공성에 대해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는 균일한 가치가 아닌 이질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고, 공공공간은 차이를 조건으로 하는 담론의 공간⁸⁾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공공공간의 정체성은 충분히 다의적 요소에 의해 구축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축 관련행사⁹⁾에서는 공유도시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인데 미래 공유도시의 공유요소로서 4가지의 공유자원(공기,물,불,땅)과 6가지의 공유양식(감지하기,연결하기,움직이기,나누기,만들기,다시쓰기)들을 다루며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도시와 건축, 디자인,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이 내재된 모든 상황이 연결되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전체론적 사회공유시스템을 창출하려는 사고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의 공공공간에서의 공유의 논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이러한 논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장과 같은 대규모의 공공공간에 스며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르네상스시대의 광장은 도시의 중심핵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유입성, 초점, 통일성, 기념비성의 기능을 가져야 했다.¹⁰⁾ 24시간 움직임이 지속되는 현대도시의 광장 또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의 속성에 해당하는 접근성, 상징성, 공공성, 활동성 등의 공유요소들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는 물론 나아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분석기준 검토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영역 가운데 인간의 다양한 활동범위를 수용해야하는 공공공간인 광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광장은 도시 내 비움의 장소이자 중

교,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점이며, 디자인적 접근에 따라 다의적 측면의 공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곳이다. 분석을 위해 온오프라인상의 다수의 도시 광장 사례에 대한 수집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온 유럽의 도시 광장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공유문화 기반을 하는 공공공간의 디자인적 구성 분석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6개의 분석사례를 선정¹¹⁾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광장은 국가에 따라 여러 명칭(piazza, plaza, place, square)으로 불리고 있으며, 여러 문화권과 사회, 도시가 발전 및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구축된 장소이다. 사례의 광장들은 건축시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중세 및 르네상스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조성되었고, 지금까지도 시민 생활을 위한 주요 공공공간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소통 그리고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장소들이다. 사례 중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Piazza San Marco, Place Stanislas, Grand Place) 되었거나, 등재된 역사지구-역사적·건축적·종교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어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내에 위치한 광장(Piazza del Campo, Old Town Square, Wenceslas Square)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분석사례개요 (WCH:World Cultural Heritage)

Code	광장명	위치	건축시기	비고
S1	Piazza del Campo	Siena, Italia	12세기경	WCH
S2	Piazza San Marco	Venezia, Italia	800~1100년	WCH
S3	Piazza Navona	Roma, Italia	15세기경	
S4	Piazza del Campidoglio	Roma, Italia	1547년	
S5	Dam Square	Amsterdam, Netherlands	1621년	
S6	Plaza Mayor	Madrid, Spain	1619년	
S7	Plaza de Espana	Sevilla, Spain	1929년	
S8	Place des Vosges	Paris, France	1612년	
S9	Place Vendome	Paris, France	1698년	
S10	Place Stanislas	Nancy, France	1755년	WCH
S11	Grand Place	Brussels, Belgium	1695년	WCH
S12	Old Town Square	Prague, Czech	12세기경	WCH
S13	Wenceslas Square	Prague, Czech	1348년	WCH
S14	Trafalgar Square	London, England	1841년	
S15	Mary's Square	Munich, Germany	1158년	
S16	City Hall Square	Copenhagen, Denmark	1894년	

3.2. 분석방법

(1) 평면 형태와 유형

광장의 형태적 특성은 도시공간에서 공유문화에 대한 내재된 공간적 구성 특성 및 인간의 공간 활용에 있어 많은 의미를 준다. 광장의 평면적 형태는 그 특성상 기

11) 모아진 전자잡지(<http://dl.modazine.com>)에서 추출된 광장 관련 기사와 e-book, 앤 밴투스 외 2인이 소개한 아름다운 광장 100, 서양 건축사(임석재), Project for Public Space(<https://www.pps.org>) 등에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도시의 변천과정을 통해 공적공간이자 도심의 중심점으로서 광장문화를 이끌어온 유럽의 도시 광장들을 분석사례의 대상으로 하였다.

8)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도서출판이음, 2009, p.28
 9) 2017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17), <http://seoulbiennale.org/>
 10) 임석재, 서양건축사, ㈜북하우스퍼블리셔스, 2011, p.335

하학적 도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평면도형의 분류에 따라 변형된 형태를 포함하여 근사한 형태의 7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2> 평면형태의 분류기준

구분	내용
정방형	정사각 형태에 가까우며 부분적으로 절삭 또는 사선 등의 변형된 형태를 포함
장방형	직사각 형태에 가까우며 부분적으로 절삭 또는 사선과 같은 변형된 형태를 포함
타원형	광장의 폭이 좁고 긴 형상의 타원의 형태를 포함
부채꼴형	한 면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펼쳐지는 형태를 포함
사다리꼴형	광장의 한쪽 방향으로 폭이 넓어지는 형태를 포함
분절형	차로에 의해 두 개 이상으로 평면이 나뉘어진 형태를 포함
그자형	대광장과 소광장이 연속되며 그자 모양으로 꺾인 형태를 포함

(2) 접근성

광장으로의 접근성은 광장에서의 공유 활동 가능성에 대한 기능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광장으로 이어지는 보행자도로(이하 보도)의 빈도수와 차도에 의한 접근 형식 그리고 교차형식 등을 분석하고 또한 광장 주변(가시거리 내 위치)의 대중교통/지하철역/버스/트램 등 유무를 확인하여 광장의 접근수준에 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이는 시민들이 광장의 활용 범용성에 대한 예측과 분석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징성

도시 내에서 광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을 갖는다. 또한 도시, 건축, 문화 등 각 분야의 내재된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물리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요소들-기념비, 기념동상, 분수, 종탑 등-에 의해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광장에서의 상징적 요소는 기억하기 쉬운 공유요소로서 방문자들이 의존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공유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광장의 랜드마크 시스템인 상징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활동성

광장이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와 교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며 고유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문화적, 교육적 활동과 같은 지속가능한 공유 활동요소들로 하여금 24시간동안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창출해 내야 한다. 또한 시장, 문화행사, 공연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활동들도 수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모든 활동을 담아 내며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장을 둘러싼 공유 활동요소들-문화, 종교, 학문, 행정, 상업 등의 5가지 활동-에 대한 파악과 분석을 통해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해보았다.

<표 3> 광장을 둘러싼 공유 활동 요소

구분	내용
문화적 활동	궁전 등의 문화적 유산, 도서관, 공연장, 뮤지엄 등
종교적 활동	성당, 교회 등
학문적 활동	대학, 연구소, 학회 등
행정적 활동	시청, 관공서 등
상업적 활동	카페, 레스토랑, 호텔 등

4. 분석결과

















4.1. 광장의 평면 형태와 유형 분석

사례 광장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분절형>정방형,부채꼴형,그자형>타원형,사다리꼴형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광장의 형태는 도시의 건설 및 재건축 과정에서 개방된 공간 주위에 건축물들이 둘러싸임으로써 형성되며,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확장과 변형의 과정을 겪으며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발전해왔다. 장방형의 사례들은 장변과 단변의 비가 약 1대1.5~3.3에 해당하는 세장비를 가지는 형태이다. S11은 세장비가 약1대2인 직사각형 구조의 광장으로 다른 사례광장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대광장(Grand Place)이라는 명칭답게 지역의 역사와 건축 및 예술 양식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랜드스케이프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

분절형의 사례들은 주로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광장의 중앙이나 한쪽 측면이 분절된 경우이다. S5는 광장의 중앙을 관통하는 트램 등의 대중교통으로 인해 다소 복잡하지만 시민들이 활기차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광장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9에서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광장이 3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되어 있는 형상이다. 현대의 광장이 보행자중심의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유형의 광장은 현대인의 공유문화를 지원하는 공공공간으로서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방형의 사례 S8에서는 4면을 둘러싸고 있는 아케이드 건축물들과 자연적 요소 및 상징적 요소들이 완벽하게 대칭되고 있는 기하학적 설계방식은 광장의 평면구조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마치 주택 내부의 정원과도 같은 안락한 소통의 장소로서 현대인들의 역사문화에 대한 탐색과 사색을 지원하는 공유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부채꼴형의 S1은 광장의 평면이 밝은 색의 대리석 띠로 인해 9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바닥면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만들게 하여 역사적 장소(Palazzo Pubblico)로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 있게 동선이 흐르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마치 공연을 보듯 초점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앉거나 눕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등 사적이기도 공적이기도 한 활동들을 하며 도시공간 내에서 공유 활동을 위한 개방된 공공공간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공감하게 된다.

<표 4> 광장의 평면 형태와 유형

S1	S2	S3	S4
Piazza del Campo	Piazza San Marco	Piazza Navona	Piazza del Campidoglio
			
S5	S6	S7	S8
Dam Square	Plaza Mayor	Plaza de Espana	Place des Vosges
			
S9	S10	S11	S12
Place Vendome	Place Stanislas	Grand Place	Old Town Square
			
S13	S14	S15	S16
Wenceslas Square	Trafalgar Square	Mary's Square	City Hall Square
			

Code 평면유형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S14	S15	S16
정방형								■		■						
장방형						■					■				■	■
타원형			■													
부채꼴형	■						■									
사다리꼴형				■												
분절형					■			■					■	■		
ㄱ자형	■											■				

광장의 형태가 약 90도로 꺾여 있는 모양의 ㄱ자형인 사례 S2는 피아자(piazza)라 불리는 주광장이 있고 남동쪽의 바다를 향해 확장되어 있는 피아제타(piazzetta) 즉 소광장으로 구성된다. 주광장의 3면이 아케이드로 구축된 건축물들이 ㄱ자형으로 연속되어 다소 외부로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식되나 이는 다시 소광장으로 이어지며 개방감이 극대화되는 열린 구조의 바다와 면한 광장을 맞이하게 된다.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ㄱ자형의 광장을 커다란 하나의 거실과 같이 인식하며 자유로운 활동과 공유를 향한 문화적 움직임을 표출한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타원형의 S3은 과거 전차경기장으로 사용되었던 트랙 주변의 역사적 건축물과 상징적 요소들로 많은 방문객들을 유입시키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유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광장 안으로 진입할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사다리꼴형의 S4는 폭이 넓고 경사진 계단을 오르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광장을 둘러싼 좌우, 안쪽 정면에 3채의 건물은 광장의 평면적 형태를 강조하듯 비스듬하게 배

치되어 있어 광장의 형태가 확장되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평면 위에 그려진 타원형의 바다 패턴과 광장의 중앙에 있는 석상은 방향성과 중심성을 내포하며 방문자들의 문화적 공유 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4.2. 접근성 분석

사례광장으로의 접근형식은 보도, 보도+차도, 보도+대중교통, 보도+차도+대중교통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도만으로 광장을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경우는 6개(S2,S4,S7,S10,S11,S15)의 사례로 전체 사례의 37.5%가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의 보도 수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도가 가장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S13의 경우 차도로의 접근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광장의 평면 형태가 좁고 긴 세장형에 가까운 분절형으로서 그 특성상 접근이 용이한 보도/차도가 필연적으로 다수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보도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 S9는 차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보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경우이며, 또한 보도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시민들이 광장에서의 다양한 공유 활동을 위한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도의 접근성 분석에서는 그 접근 형식에 따라 통과형, 회전형, 교차형, 측면형, 복합형 등의 5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광장의 둘레 전체를 돌며 접근하게 되는 회전형이 사례의 40%(S1,S3,S8,S14)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광장 내부로 차량이 진입하지는 못하나 광장을 한 바퀴 돌아 광장으로의 접근을 유리하게 계획하고 있다. 하나의 차도로 광장을 통과하도록 계획된 S6와 광장의 한쪽 면만을 차도로 연계시킨 S12는 최소한의 차도 계획으로 광장을 공공의 공유공간이 되도록 쾌적함과 편리함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광장에서 시각적으로 인지되며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나 트램,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연계시킨 경우는 6개의 사례로 전체의 37.5%만 해당된다. 이 사례 광장은 지상에서 대중교통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S13과 S14만이 지상(버스,트램)과 지하(지하철)의 교통시스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광장으로의 접근을 보행도와 차도 모두 유리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써 광장을 공유하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4.3. 상징성 분석

광장에 계획된 상징적 요소들은 광장의 내부와 외부에

서 시민들에게 스스로 공유를 위한 활동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6> 광장사례의 상징적 요소

Code	분수	종탑	기념비(물)/동상	합계(점)
S1	■	■		2
S2		■	■(2)	3
S3	■(3)			3
S4	■		■(3)	4
S5			■	1
S6			■	1
S7	■			1
S8	■(4)		■	5
S9			■	1
S10			■	1
S11		■		1
S12		■	■	2
S13			■	1
S14	■(2)		■(5)	7
S15	■		■	2
S16	■		■	2

(괄호안 숫자는 복수를 의미함)

4.4. 활동성 분석

사례광장을 둘러싼 건축물들의 기능적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예측되는 공유 활동 요소들의 현황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광장의 활동 요소들은 <상업><문화><행정><종교><학문적> 활동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 광장에서 상업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특히 S14는 이들 5가지의 활동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뮤지엄과 공연장 등의 문화적 활동을 포함하여 대사관 및 관공서 등의 행정적 활동, 대학의 학문적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의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S6은 4층의 건축물이 광장을 위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중 유일하게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 등의 상업적 활동들만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시장의 기능을 하면서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S9의 경우에도 쇼핑의 명소라고 할 정도로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보석상들과 명품상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의 56.2%는 각 3가지의 활동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문화-종교-상업/문화-행정-상업의 조합으로 구성된 활동 요소를 포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상업적 활동 요소는 2개의 사례(S4,S7)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문화적 활동 요소 또한 3개의 사례(S6,S9,S15)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활성화되고 있었다. S2의 경우 지역의 문화 중심지답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이 광장을 에워싸며 문화적 공유와 향유를 향해 열려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장에 인접한 건축물 중에는 시청, 대사관 등의 관공서가 상당부분 배치되어 있어 행정적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3의 경우 인접한 대사관 건물이 다수 확인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 활

동 요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축의 역사가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종교적 활동 요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례광장의 인접한 교회나 성당의 출현 또한 10개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활동 요소에 비해 학문적 활동요소는 두 개의 사례에서만 확인되는 등 시민들의 학술적 공유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광장사례의 인접한 공유 활동요소

Code	문화	종교	학문	행정	상업
S1	■	■	-	■	■
S2	■	■	-	■	■
S3	■	■	-	■	■
S4	■	■	-	■	-
S5	■	■	-	-	■
S6	-	-	-	-	■
S7	■	-	■	■	-
S8	■	■	-	-	■
S9	-	-	-	■	■
S10	■	-	-	■	■
S11	■	-	-	■	■
S12	■	■	-	■	■
S13	■	■	-	-	■
S14	■	■	■	■	■
S15	-	■	-	■	■
S16	■	-	-	■	■

5. 결론

본 연구는 도시 내 대규모의 공공공간 즉 광장이 도시의 경쟁력을 주도함과 동시에 사회 문화적 공유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시작으로, 공공디자인 영역 가운데 하나인 광장이라는 공공공간에 공유문화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유문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도시 광장을 사례로 그 디자인적 공간 구성의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대사회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핵심적 시스템으로서 공유문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회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었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는 공유라는 사고와 실천적 행위를 통해 공존해야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당연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인지해야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의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공유공간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가 공유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현대사회에서 광장은 근본적으로 공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한 공공공간이며, 공유라는 가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재생산해내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문화가 내재된 광장의 공간 구성에 대한 디자인적 특성은 평면의 형태와 유형, 접근성, 상징성, 활동성 등의 각 공유요소별 평가와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3) 사례광장들의 평면의 형태는 그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사건 및 행사 그리고 위요된 건축물들의 구축과정과 긴밀하게 관련하여 형성되어왔으며, 각 사례마다 다양하게 평면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유사한 형태를 추출한 결과 7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평면유형들은 각 평면의 형태에 유리한 공유 활동을 이끌어내면서 그 지역마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탐색적 공유 공간으로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고, 휴식과 사색을 위한 일상적 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의 모임이나 축제와 같은 일련의 행사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서 발전적 공유문화의 형성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까지 주로 정치적 소통을 위주로 공유되어왔던 국내의 광장에서의 활동에서 문화적 공유공간으로의 광장의 역할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광장의 활용방안과 활성화를 통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도시의 인프라로서의 다의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광장에서의 공유 활동을 위한 접근은 사례에서 보도와 차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보도중심 접근율은 37.5%인 반면 차도로의 접근율은 62.5%이며, 차도를 제외한 보도+대중교통 접근율은 6.2%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시의 친인간적/친환경적 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혹은 요즘 보행자중심의 공공 공간 계획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보도나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높은 접근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상당부분 차도로 둘러싸여 보도로의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국내의 광장 상황에 비추어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5) 광장의 상징적 요소는 주로 넓은 수평면 위에 수직적 요소들로 파악되며, 사례광장에서 이들 요소들은 각 사례마다 하나 이상씩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예술적 감흥과 함께 역사적 상징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랜드마크이프라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함으로써 광장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시각적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장은 도심 속 비움의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의 공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장이 속한 도시의 시각적 공유 또한 공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광장의 속성상 의미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광장의 계획 시에 대한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들의 기능으로 확인된 공유 활동 요소들은 시민들의 공공생활과 밀접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향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행정적 시스템이 광장에서의 공유 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유재인

광장은 공유문화의 플랫폼으로서 시민들의 공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광장 공간의 디자인적 구성 특성과 방법을 통해 공유활동의 다양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공유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활동 특성을 드러내는 광장의 공간 구성에 대한 디자인적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공유문화기반의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향후 광장과 같은 대규모 공공공간의 계획과 구축에 기초적 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공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공간의 사례로 광장이라는 공간에 국한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후에 좀 더 다양한 공간의 분석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기반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광노완,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8, 2011
2. 이영범,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미메시스, 2009
3. 임석재, 서양건축사, (주)북하우스퍼블리셔스, 2011
4. 진진영, PLAZA 광장에서 길을 묻다, 문화공간, 2009
5. 최진규, 공공디자인 펀더멘털, 시공문화사, 2008
6. 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도서출판갈무리, 2015
7.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주)도서출판 이음, 2009
8. 앤 벤투스 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100, (주)터치아트, 2008
9. 제러미 리프킨, 한계비용 제로사회, (주)민음사, 2014
10. 제이 월제스퍼,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주)우리교육검등소, 2015
11.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주)도서출판한길사, 2009
12. Rob Krier, 도시공간디자인론, 시공문화사, 2000
13. <https://www.discoveruscany.com>
14. <http://dl.modazine.com>
15. <https://en.wikipedia.org>
16. <https://www.london.gov.uk/about-us/our-building-and-squares/trafalgar-square>
17. <http://seoulbiennale.org>
18. <http://www.googlemaps.com>
19. <http://www.law.go.kr>
20. <http://www.placevendomeqatar.com>
21. <http://www.pps.org>
22. <https://www.pragueexperience.com/places.asp?PlaceID=605>

[논문접수 : 2017. 06. 22]
[1차 심사 : 2017. 07. 22]
[2차 심사 : 2017. 08. 05]
[게재확정 : 2017. 08. 23]